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13년

Email: VoiceOfNM@gmail.com

### 이달 5월에 뉴멕시코에서 출생한 하랑이



김태훈 김정은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 김하랑(하나님의 사랑).

### 4월 28일 골프대회



인회(회장 조규자)와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문상귀)가 보다나은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양 단체간의 공동 선언문도 채택 되어서 상호 협력할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고 신, 구회장 이 취임식도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 했으며 이임회장 김철씨에게는 L.A총영사관 총영사 감사장과, (7페이지에서 계속)

### 5월 3일 한백회 모임



한백회 뉴멕시코 회의가 성료되었습니다. 2013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뉴멕시코 알버커키에서 열린 [2013년도 제1차 한백회 회의]가 문상귀 준비위원장(현지)과 조규자 뉴멕시코 현 회장의 완벽한 준비와 현지동포들의 환대 속에 성료되었습니다. 5월 3일 오후 7시 한인회 한인회관에

준비된 환영만찬에는 전직 뉴멕시코 한인회 전직회장 및 목회자를 비롯해 40여 명의 동포들이 한백회 회원들을 반가이 맞이하였으며 환영식 식순에 따라 조규자회장의 환영인사 와 신규준 회장의 답사에 이어 한백회에서 준비한 (6페이지에서 계속)

### 5월 11일 김순자 권사 장례예배



지난 5월 11일 오후 11시에 김순자 권사의 장례식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다. 김순자 권사는 알버커키에서 40여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알버커키의 한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지켜왔기에 교회를 가득 메울 만큼 수많은 조객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순자 권사는 1928년 8월 28일 함경남도에서 출생했으며 2013년 5월 2일 오전 9시에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Hyon Chol Brown, 딸 김미경, 딸 Leona Hovander가 있고 (8페이지에서 계속)

### 장상순 박사 한의대 강의 시작



알버커키에 자랑스런 한인으로 장상순 박사를 소개한다. 장상순 박사는 지난 2001년부터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New Life Acupuncture 병원을 운영해 오다가 이번 5월부터 Southwest Acupuncture College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 대학에서 장 박사는 Korean Acupuncture와 Niddle Technic이란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Clinic supervisor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뉴멕시코에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할 것을 기대한다. 장 박사의 연락처는 505-710-7504이다.

### 재외동포신문과 기사공유

지난 5월 9일 “광야의 소리”와 재외동포신문기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신문에서 일하는 고영민 기자로부터 기사 사용을 허락하는 매일을 받았다.

### 5월 19일 아시안 훼스티벌

뉴멕시코주에 사는 아시안을 위한 축제가 지난 5월 19일 다운타운에 있는 시빅 플라자에서 열렸다. 이 축제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시간에 최귀분 팀장을 중심으로 준비한 무대가 아래 사진과 같이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선을 보였다. 다음 페이지에 축제에서 찍은 사진들이 계속된다.





## NYSKC World Mission (예배회복운동본부 Nyskc Movement HQ.)

127 Eatontown Rd. Greenville, NY 10940 Tel. (845)355-8829, (714)553-8497  
nyskcms@gmail.com, www.nyskc.org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 NYSKC Movement(예배회복운동)를 소개합니다 ◆

윤성열 목사(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담임, NYSKC World Mission GRI Professor)

할렐루야! NYSKC World Mission 본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오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섬기시는 20교회와 기관과 사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뉴멕시코 지역 성도님들께 지난 20년간 한인이민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온 NYSKC Movement(예배회복운동)를 소개합니다. NYSKC(나이스크)는 미국 뉴욕에 있는 한인이민교회에서 시작되어 예배회복을 통한 이민교회의 회복과 부흥, 목회자의 영적 성장과 목회 사역을 돋는 일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NYSKC는 다섯 가지의 신앙생활의 신조를 중심으로 한 예배회복을 이루기 위한 운동입니다. NYSKC는 N: New Life(새벽기도, 막 1:35 - 영 혼의 호흡), Y - Yielding for Manna(성경애독, 사 34:16 - 영혼의 양식), S - Salvation for one by one(개인전도, 행 4:12 - 성도의 열매), K - Keeping for LORD's Day(성수주일, 출 20:8 - 성령의 교통), C - Complete Offering(일조전납, 말 3:10 - 축복의 도리)를 말합니다.

NYSKC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행할 바요, 예배가 회복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며, 예배자가 맷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NYSKC Movement는 철저한 교회와 목회자 중심의 Church Movement입니다. 예배가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은 한인 이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인 한국 및 세계교회들의 문제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Americas Pkwy  
Marriott Dr  
Levitson Blvd  
I-40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멘또), 해물우동, 뒤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봉지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84.8937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신하고 계십니다.

또한 각 교회에서 파송하는 MS(Ministries Staff 평신도지도자), NC(Nyskian Coach 학생 청년리더)들을 교육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 9월에는 NYSKC Praise School에서 주관하는 NYSKC Praise Seminar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으로 열려 참석한 모든 찬양 사역자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미국 한인이민교회의 모습은 예배의 경건과 성령의 역사를 등한히 함으로 성령충만과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 인간의 감정이나 인위적인 흥분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가정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NYSKC Movement가 시작되었습니다.

NYSKC World Mission은 예배회복을 위하여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년 여름 전국적이며 세계적인 Family Conference를 열고 있습니다. 나이스크 내셔널 웨일리 컨퍼런스는 예배회복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며 성회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무너진 예배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NYSKC Family Conference는 1년에 한번 미독립기념일 주간(6월 말-7월 초)에 National Conference를 3박4일간 열고 있습니다. Nyskc Conference는 Family Conference로 5Track(목회자, 사모, 학생청년, 어린이, 평신도)으로 진행이 됩니다. 3박4일 동안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영적 군사훈련입니다.

지난 2010년도 NYSKC Family Conference, NY대회에는 100여 교회가 참여하여 큰 도전과 은혜와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별히 2010년 대회는 나이스크가 시작된 뉴욕에서 15차 대회로 열려 15년의 컨퍼런스 사역을 결산하고 앞으로 15년을 준비하는 의미있고 뜻 깊은 대회입니다. 컨퍼런스 기간중 열리는 전도대회를 세계의 중심인 뉴욕 맨하탄 타임 스퀘어에 나가 참가자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습니다.

2011년도는 유럽한인이민교회들을 위해 영국 런던에서 NYSKC Family Conference EU '11 이 2월 14일-17일(3박4일)에 열렸고, 또한 한국교회의 초청을 받아 8월 8일-12일(4박5일)에 오산리기도원에서 NYSKC Family Conference Korea '11를 성대히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2010년도에 한국의 각 교단에서 나이스크를 초청하여 주셔서 먼저 합동축(3월), 합신축(8월), 오산리기도원(11월)에서 나이스크 예배회복운동을 소개하는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성회를 통해 큰 은혜와 도전과 비전을 갖게 된 목사님들의 요청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National family Conference를 가졌고, 2013년 2월에는 인디아에 서남아시아 본부를 그리고 필리핀에는 동남아시아 본부를 설립하는 등 땅끝 까지 예배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nyskc.org 참조)

둘째, NYSKC Learned Society(회복의 신학 학회)의 활동입니다. 학회의 활동은 예배, 선교, 교육, 구제의 분과로 나뉘어 회복의 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의 교수들을 통해 각 지역본부의 NYSKC Forum에서 강의가 진행되며, NYSKC Movement에 협력하시고 동역하시며 함께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사님(Nyskcist)들을 대상으로 Seminar와 Symposium을 주최 강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NYSKC 목회자 Symposium은 작년과 같이 유서 깊은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NJ)에서 5월 13일-16일(3박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심포지움에는 목사님들 및 신학자들이 참석하여 교회론, 성령론, 예배론을 중심해서 회복과 예배의 관점에서 말을 연구하며 주제별 강의를 통해 목회의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G. R. I. (Goshen Research Institute, 고센 목회 및 신학 연구회) 및 G. T. S. (Goshen Theological Seminary)의 활동입니다.

현재 나이스크에는 6분의 GRI (Goshen Research Institute) 교수들과 9분의 GTS(Goshen Theological Seminary) 교수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한인이민목회와 강의를 병행하면서 컨퍼런스나 심포지움, 포럼, 세미나에서 강의와 설교로 섬기시며, 각 지역 연합 집회와 제직세미나 등의 강사로 예배회복운동을 위해 현

NYSKC Movement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교회를 살리자는 이세대의 교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며 한인이민교회의 대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미주를 넘어 세계에 흩어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한인이민교회 목사님들과 협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NYSKC Family Conference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이스크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6월 2일

NYSKC World Mission 대표 회장 : 최고센 목사  
뉴멕시코 지부장 : 윤성열 목사

## NYSKC(나이스크, 예배회복운동) Family Conference 2013

일 시: 7월 1일(월)-4일(목)

회 비: 300.00(숙식 및 교재)

장 소: Northern Arizona University  
(애리조나 Flagstaff 소재)

문 의: 윤성열 목사(505-331-9584)

## 글리온 돌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작가

내가 태어난 날은 1940년 9월 29일이었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는 농사짓는 데 편리한 음력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음력생일이었다. 토정비결이며 사주로 운명의 길흉을 점쳐보는 일도 아주 흔하던 때였다. 불시에 사주를 물어보기도 해서 몇 번 대답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경진 구월 스무 아흐레 술시'가 머릿속에 입력되어버렸다. 어리기도 했지만 아무리 바빠도 농사일은 제때에 해내야 하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생일은 어른들이 기억해서 챙겨주는 날로만 알았다. 색다른 음식이라고 이웃 어른들까지 초대한 자리에서, 닭고기를 넣어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덕담을 들으면 그게 생일이었던 것이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의 생년월일 난에 호적에 적혀있는 날짜를 적어 넣고, 그것을 기억해두어야 했다. 소위 호적생일은 내가 기억하던 음력생일과는 동떨어진 1941년 12월 15일이었다. 생일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되는 일이다 싶어 그냥 지내다가 고등학교학생이 되었을 때 어른들에게 물었더니, 출생신고가 늦어 그렇게 되었다는 대답이었다. 누나와 열 살이나 차이 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사이 흥역 때문에 자식 몇을 날린 탓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예 그런 잔병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고하다 보니 일 년도 더 늦었다는 것이었다.

나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연배 중에도 실제나이와 호적나이가 다른 경우를 간간이 보았다. 6.25 전쟁 중에 호적이 타버려서, 이장의 면사무소 행차 날이 출생신고를 한 날이어서, 심지어 돌도 못 지나고 죽은 형의 이름과 생일

##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소식지

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바람에 등 연유도 갖가지였다. 가히 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일이라 이를만했다. 나만 당한 일도 아니고, 가끔 나이를 혼동하게 만들 뿐 사는 데 크게 불편하지도 않으며, 태어난 것도 내 의지가 아닌 바에 생일 좀 틀린 게 대수냐 하면서도 신상명세서를 작성할 때면 이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생년월일이라는 느낌이 들고는 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이다 싶었다.

나이 예순 한 살 환갑이 된 2000년에야 양력으로는 생일이 10월 26일임을 알았다. 태어난 해의 것과 똑같은 달력이어서 음력과 양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일을 처음으로 맞이했던 것이다. 그렇게 뒤늦게 찾은 것까지 보태면 나는 생일 셋을 가지게 된 셈이었다. 이 무렵 나는 정년을 앞두고 호적을 정정하여 생일을 바로 잡는 사람도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개 실제나이보다 호적생일이 빠른 경우였다. 여러 가지 서류를 붙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밟고 싶지 않아 그런 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아니 그보다 ‘굴러온 돌’이 실제생일보다 13개월도 넘게 늦어서 한 해라도 더 일할 수 있으니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생각했다는 편이 옳다 하겠다.

여생을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 정년 후 곧장 뉴멕시코 주의 앨버커키로 옮아온 지 5년이 지났다. 굴러온 돌은 여기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여권은 물론이며 영주권이며 운전면허증에 하나같이 굴러온 돌이 박혀있으며, 작년 말 홀란드 아메리카 크루즈 회사에서 보낸 생일축하카드도 굴러온 돌에 맞추어져 있었다. 거기다 나이가 많아져 병원을 더 자주 들락거리는데, 그때마다 간호원이나 의료보조원이 이름과 함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는, 그것도 모자라 재확인한다. 일일이 대답하고 나면 행복했던 내 어린 시절이 요즘 들어 부쩍 더 자주 머릿속에 떠오른다. 한적하던 고향마을이 그리워진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던 그 돌이 어느 사이 내가 되어 있었던 걸까. 아니, 내가 향수에 젖어있어서 일까. 응모작품으로 제출한 수필원고 중에 ‘몽당비’가 심사결과 <미주 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또 하나의 돌이 나에게 굴러들었구나 했다. 바라던 바요, 축하 받을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평생을 과학자로 산 나다. 과학이 무엇이던가?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일련의 사실을 다루며, 여러 법칙의 작용을 해명하는 것 아니던가. 과학자는 이성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과학자의 모든 자질을 내가 충분히 갖추었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성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정년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믿은 나는 퇴직하던 날 바로 전공에서 벗어났다. 허전하기도 했으나 이제 부터라도 무엇에 얹매이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지 싶어서였다. 남아도는 시간을 읽기에 썼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것이 떠오르면 써보기도 했다. 겨우내 움츠렸다가 맞이한 봄날이 너무나 화창해서 지팡이 하나 챙겨 들고 무작정 길을 떠났던 것이 돌이 되어 굴러드는 바람에 칠십이 넘은 내가 강하게 흔들렸다. 그 자리를 멋없이 지킬 수 있을지 자못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일생에 마지막으로 굴러온 돌일 것임에 틀림없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 수필은 진실을 토대로 형성되는, 억지로 꾸미지 않아 무리함이 없는 자연과 사물에 대한 서술이어야 한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는다.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하고, 객관적 사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솔직해야 한다는 경구들은 내가 지녀야 할 정신자세다. 실험에서 얻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버리고, 탈고한 논문은 반드시 동료나 제자들에게 읽혀 고치기를 반복하던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나를 뒷받침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일본의 선승 류스즈끼가 남긴 말도 믿는다. “초심자의 머리에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문가의 머리에는 소수의 가능성만 존재한다.”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6:00 pm

§ :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 , , ,  
§ http://cafe.daum.net/abq-catholic

##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 : 1:00 pm  
§ : 5:30 am ( )

§ :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1 § : 11:30 am  
§ : White Rock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2 § : 2:00 pm  
§ : Westminster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 : 11:30 am  
§ : White Rock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 拉斯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이준우 목사(505-269-0691)

§ : 10:00 am  
§ : 525 N. Madrid Suite#2, Las Cruces, NM 88011

## 拉斯쿠르시스 한인교회 (Las Cruces)

김용호 목사 (575-644-6545)

1132 Solano, Las Cruces, NM 88001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김의석 목사

§ : 2:00 pm  
§ 6:00 am (Tue-Fri)

§ : 10:00 am  
§ :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Worship) § 11:00 am (Sunday)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 7:30 pm  
§ 5:30 am (Tue-Fri) § 6:00 am (Sat.)  
: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505-803-7716

## 화밍تون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 : 12:00 am ( ) 1:00 pm (Indian )  
§ :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렬 목사 (505) 331-9584

§ : 9:00 am § : 11:00 am  
§ 5:45 am (Tue-Fri)  
§ 7:00 pm  
§ :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노아의 방주

이경화 장로

지난 15일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폭탄테러 참사는 세상 사람들을 실망과 탄식하게 만든 보도였습니다. 1776년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애국의 날 Patriot's Day 휴일에 갖는 보스톤 마라톤 대회는 한국인에게는 특히 잘 알려진 대회입니다 1947년 서윤복이 일등으로 기록하고 3년뒤엔 함기 용 송길윤 최윤철이 1, 2, 3등을 쓸어버렸습니다. 51년 이 지나서 2001년에 와서 다시 이봉주 선수가 1등을 기록했습니다. 금년 대회에도 2만 7천명이 참가한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결승점 근처에서 폭발한 두개의 폭탄은 압력 솟에 폭약을 넣어 만든 폭탄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약 170여명이 팔 다리가 잘리는 부상을 입었고 아버지가 결승점에서 완주하고 들어오길 기다리던 8살 먹은 남자아이와 보스톤 대학원 생인 중국 여학생을 포함해서 3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끔직한 사건이 터진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고 계실까? 탄식하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상자 중에는 위독한 환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늘어 날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죄없는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폭탄속에 못을 잔뜩 넣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다치게 폭탄을 만들었다니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속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에도 죄악이 문제거리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빠져 있을때 그중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인이 있었는데 그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는지를 오늘 본문 창세기 6:9-21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봉독한 창세기6장에는 노아의 얘기가 시작 됩니다. 노아는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 인물로 꼽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번성했으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차고 무법천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은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다가 모든것을 멸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예외가 있었음을 6:8(공)에서 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즉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노아의 얘기를 둘러 보면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 면서 창세기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봉독한 6:9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사람이 동행 하려면 목적지가 같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뿐 만은 아닙니다. 같이 걸을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서로가 의견에 충돌되는 관계라면 동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젊은 두사람이 동행한다면 더더욱 면길도 가깝게 느끼며 걸어 갑니다. 대화도 깊어 질것입니다.

꼭 걸어야만 동행이란 말을 쓰는것은 아닙니다. 친구와 차를 함께 타고 동행하는 경우도 생각해 봅니다. 교우여러분과 산타페에 다녀올 경우가 있습니다. 동행하는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보통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이해하게되고 느끼지 못했던 예수안에서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상대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실망에 젖은 예수의 제자 두사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얘기를 나누다보니 용기를 되찾

은 얘기도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얘기를 우리는 압니다.

노아가 동행한 하나님의 경우는 영적인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노아는 당연히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 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할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이에 있을때 하나님 사랑은 더 깊어 질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톤 마라톤 사건얘기가 나왔으니 육상경기에 관련되는 예화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1년 영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1924년 하계 올림픽에 출전한 100m-400m 달리기 육상 선수 에릭 리델과 해럴드 아브라함의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아카데미상에 7번 지명되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하여 4번 수상했고 영국영화협회가 지정한 100개의 우수한 영국 영화에서 19위에 순위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알게 된 것은 주제곡 음악이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는것을 듣게 되어 영화를 알게 되었는데 영화 내용 속에 보면 에릭 리델이 기도회 모임에 육상 운동하다 보니 빠진일이 생기자 동생이 오빠를 신앙부족이라고 꾸짖자 에릭이 크리스챤에게 본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뛰는 것을 포기하는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회는 빠졌지만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육상경기중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는 금메달을 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자에게는 힘주시고 능력주신다는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으로 엄청난 큰 방주를 만들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 -방주를 짓는 순종-

하나님은 노아에게 6:14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분부를 하십니다. 그당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대한 크기의 방주를 분부하셨습니다. 방주의 규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리가 삼백규빗. 한 규빗은 약 1.5피트이므로 300규빗은 우리 교회 부지의 남북의 거리 300피트 보다도 50% 더 되는 450피트 거리입니다. 폭이 50 규빗이면 약 75ft. 우리 본당의 폭이 50ft입니다. 역시 50% 가 더 긴 폭에다 3층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대한 주문을 거절하지 않고 120년을 걸려서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너무 크니 조금 작게 만들자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만들다니 말도 안된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약의 여러곳에서 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고 11:7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것이 배울 점입니다. 순종의 결과 그와 가족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상속에서 음성을 들었는지 … 모세처럼 시내산 천등소리 속에서 들었는지… 성경은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때의 노아와 다른것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소식지

자주 듣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예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 한다든지 하는 타협을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 남들에게 빛나게 잘 보여지는 것, 인기를 끄는 일들을 선택해서 순종하고 어렵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 순종은 사절합니다. 교회는 있지만 십일조는 내지 않겠다. 성경은 읽지만 나에게 상처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도 중에서 자주 드리는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잠시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온갖 짐승의 소리를 들게 되겠지요. 동물원에 가 있는 기분일 것입니다. 동물들이 다 행복하기만 할까요? 배고프다, 가깝다.. 하며 울부짖는 소리는 없었을까요? Animal Control 센터에 간힌 개처럼 짓어대는 동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바쁘울까요? 먹이도 주어야 하고 냄새 나는 오물 청소도 하는 등 고생을 일년 넘게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 속에는 노아의 가족이 행했던 헌신의 결단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교회의 방주 안에는 향기로울고 감미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싫고 더러운 일을 견디고 헌신하는 일이 따라야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헌신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노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여러 짐승들을 태우고 40일의 비로 인한 홍수에서 살아 남게 되었습니다. 일년 동안 방주 생활을 한 뒤 드디어 물이 빠지고 땅이 말라서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육지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었인지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즉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됩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렀습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 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지기게 한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9:12-13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창9:7 공) “너희는 많이 낳고 불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감사할 줄 알고 예배에 충실했던 노아는 미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충실했던 노아를 본받아야 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축복도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주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1)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갈 때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 하셨습니다.

3)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무지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의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동행, 순종, 예배 세 가지를 통해서 노아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 합니다.

(2013년 4월 17일 수요예배 설교문)

(커버페이지 **5월 3일 한백회**에서 계속) 감사패를 문상귀 준비위원장과 조규자 현 한인회 회장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문상귀 준비위원장의 매끄러운 사회진행으로 계속된 환영식에서 한백회 회원을 비롯한 지역 전직 회장들의 다채로운 견배제의는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이끌었으며 이어서 한백회 회원이며 센디이고 한미노인회장 유석희 회장이 준비한 “미국을 사는 지혜”라는 제하의 특강에서 은퇴 후 건강보험 및 극빈자 건강보험 가입요령과 필요성 그리고 은퇴연금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과 극빈자 은퇴 연금 SSI(Social Security Supplemental Income)의 차이점 및 신청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아침식사는 한백회 가입을 희망한 정풍자 회장 제공으로 마치고 각자 희망에 따라 관광 팀과 골프 팀으로 나뉘어 여가를 즐긴 후 숙소인 Marriott Hotel에서 오후 6시 한백회 제1차 뉴멕시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승구 간사장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회의에 문상귀 준비위원장의 환영사, 신규운 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김기홍 초대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유석희 회장과 김기홍 회장께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후 한백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조규자, 정풍자 회장에게 한백회 베트지를 달아 주었습니다.

제2부 회의에서 국승구 간사장은 2007년 2월 아리조나 휴스턴에서 나눔회에서 한백회로 개명된 이후 부터 2012년 9월 콜로라도 스프링스 회의까지의 경과보고와 재정 보고를 별도의 사진 영상

과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속개된 회의에서 토의안건 중 한백회의 진로 및 회원정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하여 편의상 회의 진행을 위임 받은 국승구 간사장은 현재 76명의 등록 회원 중 옥석을 가려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반드시 정리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 정리 및 진로의 결정은 회칙을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회칙에 따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은 임원(회장)에게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공백이었던 재무에 뉴멕시코 전직 한인회장이었으며 현 상공회의 회장인 문상귀 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번 뉴멕시코 회의는 회원간 단순 친목만을 위한 모임의 차원을 넘어 해당지역 동포들과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백회 회원은 동포사회 지도자들의 모임의 주체자로써 해당지역 현지 한인회장을 배려하고 응원하며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회의 내용 및 사진을 한백회 블로그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장 앙 의 소 조규형 제 7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



조규형 제7대 재외동포재단 신임 이사장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조 신임 이사장은 이날 50여명의 재외동포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 인삿말을 통해 “새 정부가 동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요구한 만큼 지혜와 힘을 모아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또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고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세계의 많은 국민과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거는 기대가 높아진 만큼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짧은 취임 인사를 밝힌 뒤 임직원들 모두와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다시 재단 내 각 부서를 찾아 순회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조 신임 이사장은 11일부터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통상적인 일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국외대 서반아어과를 졸업한 후 외무고시(8회)를 통해 1974년 외무부에 들어온 조 이사장은 외무부 남미과장, 중남미국장, 주브라질 대사와 멕시코 대사 등을 두루 역임하는 등 주로 중남미권역에서 중남미통으로 활약하다가 최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부의장으로 국내 활동을 해 왔다.

(재외동포신문 6월10일자)

##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국경일로

연아 마틴 상원의원의 Bill S-213법안 국회통과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법안 통과 기념식 및 리셉션이 지난 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 연아 마틴(Yonah Martin) 상원의원이 진행해온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S-213 법안(Korean War Veterans Day Act, Bill S-213)이 제3차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캐나다는 매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날’로 기념하며, 한국전쟁(1950-1953)에 참전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따른 평화협정의 의무 까지 다한 캐나다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게 된다.

▲ 축사를 전하는 스티븐 블래니(Steven Blaney) 보

훈부 장관.

법안 통과 후 스티븐 블래니(Steven Blaney) 보훈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제 매년 7월 27일이면 한국전을 도우러 달려간 2만 6,000여 명의 남녀용사들, 특히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516명의 희생자를 함께 기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틴 상원의원은 “기념일 제정으로 한국전은 캐나다인

(커버페이지 4월 28일 골프대회에서 계속)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 감사장, 그리고 뉴멕시코 한인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감사패가 수여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2013년 연례 행사인 제2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올해에는 예상액수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

제2회 KACCNM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뉴멕시코한인상공회의소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NEW MEXICO

제2회 KACCNM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뉴멕시코한인상공회의소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NEW MEXICO

현금 \$5620.00, 물품 \$1200.00을 후원 받았고 음식비로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정말 좋은일에 쓰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알게 후원해 주신 분들, 혹여 자기 이름이 알려질까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남이알까 몰래 봉투를 건내는 분들, 참으로 후원해 주신 모두가 소중했고 감사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위해 한다면 너, 나 할것없이 주머니를 열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것에 뉴멕시코 동포 여러분들의 순수함을 볼수 있어 좋았고 아직도 하나가 되는 한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도 엿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인 상공 회의소는 업적을 남기는 단체가 아닌, 정말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

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지켜봐주시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꾸짖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올한해 많은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로이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행사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하시

는 모든일에 만사 형통 하시길 또한 가내 두루 평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장학기금 후원자 명단: A-1마켓(신광순), Asia 마켓(제임스 조), Kim's마켓(김진욱), Sakura, Sushi & Sake(고덕효), AZ Mutual Trading CO., 고산식, 김경숙, 김용환, 김포영, 문상귀, 박선희, 송완빈, 이성희(Mrs. Chavez), 이우영, 전옥미, 정대식, 정종연, 정풍자, 조규자, 차진주, 차훈, 최원길, 한광윤, 현동철, 무명 2인.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 삼선짬뽕 \$8.95 /  
해물탕면 \$8.95 / 다섯가지 냉채 \$32.95 /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  
탕수육 \$11.95 / 양장피 짜채 \$17.95

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법안 통과를 반겼다.

이날 기념식 및 리셉션에는 연아 마틴 상원의원, 조셉 데이(Joseph Day) 상원의원, 블레인 콜킨스(Blaine Calkins) 하원의원, 조 다니엘(Joe Daniel) 하원의원, 피터 스토퍼(Peter Stoffer) 하원의원, 스티븐 블래니 장관, 참전용사 및 가족, 조희용 주캐나다대사, 국방무관 이수완 대령, 한창섭 공사참사관, 차정자 오타와 한인회장, 이영해 카한협회 회장, 정영섭 박사내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마틴 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빌 블랙(Bill Black) 한국전 참전용사회 오타와지부(KVA Unit 7) 회장이 영어 축사를 하고, 임진강에서 하키 게임에 참가했던 한국전 참전용사 클로드 샬랜드(Claude Charland) 씨가 불어 축사를 했으며, 블레인 콜킨스(Blaine Calkins) 하원의원의 축사에 이어 스티븐 블래니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S-213 법안 통과를 거듭 축하하며 마틴 상원의원과 블래니 장관은 축사와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특별히 조희용 대사가 축사를 전했다.

조 대사는 축사를 통해 블래니 장관이 수교 50주년 및 정전 60주년인 아주 특별한 올해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를 지정한데 이어, 캐나다 의회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캐나다에서 앞으로 한국전쟁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며,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한국 국민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캐나다 참전용사의 값진 희생과 무한한 기여를 잊어본 적이 없으며, 그 덕분에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하여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며 참전용사 분들께 한국 국민의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마치고 <캐나다의 한국전쟁영웅들> 작가 존스 후정은 “오늘 이 기쁜 날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된 날이다. 거의 60년 동안 잊혀진 참전용사가 다음 세대에 기록될 수 있게, 가슴에 남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축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516명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고 또한 교육에도 큰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정자 오타와 한인회장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알려진 한국전쟁과 한국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캐나다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특히 아들을 가진 엄마로써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며 “그분들이 떠나신지 60여년이 되는 이날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기념 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힘든 일을 보람있게 성취시킨 연마 마틴 상원의원님을 비롯해 수고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오늘 이 행사가 한국전 참전용사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에서 리셉션에 참여한 정영섭 박사는 캐나다 국회는 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자들과 특별히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그들의 업적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고 캐나다와 한국에 대한 우의와 양국 간에 긴밀한 국교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참전용사들께 머리 숙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상이용사 분들과 아직 생존하고 계신 원로 참전용사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6월11일자)

(커버페이지 김순자 권사 장례예배에서 계속) 사위로는 김용환, Alan Hovander가 있다. 손녀로 Megan Gahan과 손자 Sean Gahan, Torin Hovander가 있다.

Message from all of family 유족들의 인사말: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in her celebration of her life. She was not just our “Mother”, but everyone’s Mother. She was loved by so many. She was well loved so many. Every Sunday as she came to Church, she will often expressed… “this is a beautiful day, isn’t it?” Some days it was difficult for me to answer, because actually it was either cloudy or windy. It wasn’t always beautiful. But, she will always say, “this is a beautiful day.” Yes, that is how she lived her life. Regardless of her life experiences, she always managed to have a beautiful day. That is the message she left with us. Thank you again.

오늘 김순자 권사님의 일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사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어머니셨습니다. 권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셨습니다. 매주일 교회 올 때면 권사님은 매번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그렇지 않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대답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던 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항상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권사님은 항상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사님이 사셨던 생활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인생살이에 개의치 않고 항상 좋은 날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권사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복수국적 협용법위, F-4자격 부여 확대된다

외국인정책위,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위해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이른바 ‘창조경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 위한 제도 혁신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청년 우수인재 동포의 복수국적 요건 완화와 관련해,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

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65세→60세→55세)키로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차원에서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차원에서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해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서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과 관련해,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청과의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17)의 시행 첫해로서, 새 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날 확정된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총 1,142개(중앙부처 194개, 지자체 948개)의 추진과제로, 예산은 7,902억 원(중앙부처 4,983억원, 지자체 2,919억원)이다.

(재외동포신문 5월27일자)

## 후세대들 위한 재외동포정책, 시급히 수립해야

김귀옥 편집위원 칼럼

2년전 이맘때는 교토에서 재일동포를 조사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다. 교수, 교사, 기업가들로부터 노동자출신의 할아버지, 식당주인, 시장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교토 곳곳에는 재일동포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었다.

교토인들이 자부하는 기모노공업은 1930년대 대중화되었다. 비단의 재료인 누에고치의 상당 양은 경상도를 비롯한 한국에서 교토로 유입되었다. 게다가 일종의 3D업종인 비단 염색업을 주로 했던 것이 재일동포들이었다. 가모가와나 셋강의 염색장에는 염색을 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재일동포들이었다. 또한 오사카와 교토를 잇는 신케이한철도의 지하철도 부분을 이은 노동자들도 재일동포들이었다. 교토의 주요 사회간접시설 곳곳에서 재일동포들은 험한 막노동을 했고, 사망자들도 꽤 많았다.

1920, 30년대 재일동포 노동자들이 교토에 운집하게 되자, 교토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야학을 하기 시작했다. 야학과 기독교가 결합하면서 현재는 '일본경도시조선인기독교회'로 불리는 교회가 그들의 힘으로 설립되었다.

일제 패전 직전 교토부 전체 재일동포 인구가 7만명 가까이 늘었으나, 1950년에는 교토시 재일동포는 2만3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해방과 동시에 외국인에서 국적 없는 '조선적' 신분이 되어버린 재일동포들은 급한 대로 어린이 교육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교를 만들었다. 1948년 혹독하게 한신교육투쟁을 치룬 후, 교토에는 세 개의 초등학교, 두 개의 중·고등학교가 설립되

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세 개의 초등학교 중 두 개 초등학교는 2013년 5월에 합교했다. 이는 교토 같은 대도시에도 소자사회의 문제가 심각하고, 대다수의 재일동포 어린이들이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민족학교를 총련계, 민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총련계 종교교 1개와 민단계 1개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일제 강점기 야학이나 해방 직후 우후죽순 생겼던 민족학교에는 남북구분이 없었다.

아무튼 민단계로 분류된 교토한국중·고등학교는 2004년부터는 일본 학교교육법 '1조교'로 지정된 한국계 일본학교로서 교토 국제중·고등학교로 개명되었다. 2011년부터는 문부과학성에 의해 고등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반면 총련계 교토조선고급학교의 경우는 여전히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2000년대 북한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북한을 대신하여 조선학교를 탄압한다는 미명하에 고교등록금 무상화 정책에서 일본 전국의 10개 조선학교 고등학생 1,800명은 배제시켰다. 심지어 외국인학교에 지급하던 진흥보조금조차도 정지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현재 적잖은 일본 지식인들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후지나가 다케시 교수,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왕따’ 된 조선학교". <프레시안> 2012. 4. 3), 조선학교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학교문제가 아니라, 과거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책임과 일본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이다.

실제로 총련계, 민단계를 막론하고 민족학교를 보면 최근 한류열풍과 관련하여 조선적 학생들만 다니는 게 아니다. 조선적이 1/3이라면, 한국계 1/3, 일본계 1/3이라는 게 일반 교사들의 주장이다. 등록금 무상화 정책과 혜택과 무관하게 민족학교를 다니면 교육비 외에도 교통비나 기숙생활을 할 경우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재 그 학생들이 주로 재일동포 3, 4, 5세대에 해당된다. 그들이 민족학교이건 국제학교이건 일본학교를 졸업하면 일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조부모의 고국이자 동족의 나라인 한국(한반도)과도 연대하고 교류할 동족이자, 다양한 한민족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세계시민의 일원이다.

오랫동안 한국 정부는 재일동포를 냉전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기민정책을 취해왔다. 재일동포들은 북한의 과도한 '해외공민' 규정도 불편하지만, 한국의 민단, 총련 딱지붙이기도 불편해 한다. 한 집안에도 조선적, 대한민국적, 일본국적을 가진 다양한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역시 그러하다.

남북분단이 계속되자, 재일동포 후세대들은 일본이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세계로 돌리고 있다. 일본의 차별과 한반도의 냉전과 이산의 고통이 사무친 탓일까? 교토국제중고 교장은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후세대들이 일본에서도 외국계 일본시민으로 활약을 할 수 있고, 한반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을 했다.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지만, 통일의 과정에도 한국의 보다 성숙한 열린 해외동포정책이 시급하다.

(재외동포신문 6월11일자)

## 미국서 안 통하는 우리식 영어 고치기

최주천 박사 juchunchai@naver.com

미국에 도착한 유학생, 이민자, 방문자가 당황하는 순간은 그동안 배운 영어가 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본인도 그들 말을 이해 못해 ‘헛공부’ 했다는 실망감을 느낄 때다. 고약한 언어 ‘영어’ 자체를 잘못 배운 탓이다.

사실, 한국어가 영어 대신 세계 공용어가 될 자격이 있다. 학창시절 같은 방에 있는 미국 친구가 한글을 배우겠다기에 가르친 적이 있다. 그가 4시간 만에 한글을 쓰고 정확한 나의 ‘대구 표준 발음’을 하는 것을 보고 세종대왕을 다시 우러러 보았다. 4시간 만에 말(Speaking)과 글(Spelling)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언어는 ‘한글’ 뿐일 것이다.

미국에선 중·고·생 ‘Spelling Bee Contest’란 연중행사가 있다. 대부분의 영어권 나라 학생이 참여하는 ‘큰 굿’(Big Event)이다. 신통한하게도 미국인이 아닌 인도 학생이 늘 일등상을 받고 있다. 외국인 학생인 나도 단어 실력은 미국 동급생들보다 나았지만 속독(Speed Reading)에는 1/2도 안 돼 한동안 고전했다.

한국정부, 직장, 학계, 가족의 서열 표기는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이다. 반대로 미국(서구)의 서열 표기는 혼란하기 짝이 없다. 장관 호칭은 Secretary, 같은 방에 있는 장관실 비서도 Secretary다. 소속 부처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Attorney General,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장관은 Director, 부처 과장급도 Director다. Chief란 호칭은 계장도 되고 청장도 된다. Chairman은 기업 회장, 대학 학과장도 된다.

미국 정부 각료급은 5단계 구성이다. (장관은 I급, 차관은 II급… V급까지) 예산관리처(OMB),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법무부(Justice Dept.), 국무부(State Dept.) 다 같은 1급 장관이지만 각기 다른 영문 호칭을 쓴다.

직급 호칭 내용을 몰라 한국 보도진에서는 미 법무부 장관을 ‘검찰 총장’, 예산관리처 장관을 ‘국장’이라 한다. 직위 호칭 오역이 정부, 학계, 보도진에서 넘치고 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장관을 계장이라 한들 우리 시민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외국인도 한국정부 국장을 대한민국 ‘황제’라 한들 아무 탈 없는 일로서 오히려 흥미로운 웃음거리로 넘긴다.

문제는 이런 오역이 국민간의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한번은 신문 사설에 미국의 일개 과장급(미국 OMB Director David Stockman 장관)이 한국 방문시 우리 장관을 ‘오라 가라’ 해 우리나라를 무시한다는 감정적인 내용의 글이 실렸다.

지금까지의 영어 공부는 발음 공부에 중심을 둬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 증거로 학교와 영어학원에 수만 명의 원어민들이 동원되고 있고, 나아가서 미국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악센트가 심한 영어권 식민지 선생님까지 모시고 있다.

중요한 국가간 계약서인 한미FTA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데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본다. 영문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미국 대학 출업자로 영어 회화를 원어민과 꼭 같이 ‘잘한다’는 기준으로 번역 직무를 맡았고, 정부 책임자는 ‘영어 잘하니’ 만사 OK로 생각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 FTA 협정서에는 상업, 농업, 의료, 등 여러 분야 협정으로 미국 영문학 교수도 분야별 전문용어에 다 능숙할 수가 없다.

영어발음을 현지인처럼 하면 더 좋지만, 반드시 꼭 그럴 필요도 없다. 미국 각 지방마다 방언이 있고 미국 대통령들도 각자 출신지의 악센트를 갖고 있다. 오히려 약간의 악센트는 각자의 뿌리와 개성을 표시하는 매력일 수도 있다. 정부 공직에 있을 때 동료 한 분이 2차대전시 미군들이 영국 군인들과 같이 영화를 보면 미군과 영국군이 웃는 장면이 다 틀리다고 밀했다. 같은 영어권에서도 발음과 해석의 차이가 심하니 서로 잘 못 알아듣는 수가 허다하다.

이런 점에서 막대한 희생으로 ‘영어 발음 잘하기 위한’ 조기 유학은 생각해볼 문제다. 조기 영어 발음연습도 중요하지만 부모 슬하 조기 ‘인성교육’은 뒤에 ‘평생’을 좌우하니 더욱더 중요한 교육이다. 조기 인성교육 부족으로 일부 한국 조기유학생은 미국과 한국 관습, 바른 매너를 다 같이 몰라 양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경우를 보았다. 조기 유학을 안 가도 한국에 많은 영어 회화 선생이 있어 구태여 무리하게 외국에 유학할 것도 없다.

광복된 지 반세기가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틀린 일본식 영어(Japolish), 표와 도표 서식(Table and Chart Format)에서 ‘해방’ 되지 못하고 쓰고 있다. 오토바이(Autobicycle)는 일제 식민시대 동력자전거이며, 바른 영어는 모터사이클(Motorcycle)이다. 정부가 틀린 일본식영어와 일어를 베낀 예로, 2009년 통계연감 국문 및 영문 표기에 아무 탈 없는 한국 기상청 국문 및 영문 표기를 우리 통계청이 일본 통계청의 ‘천기’(덴끼: 날씨 혹은 기상)란 생소한 일본어와 틀린 영어 표기(Japolish)로 바꾸었다. 2011년 미국과의 FTA 협정서에 250여 번역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다. 세계화 시대 정부 협정 및 민간 계약서의 정확한 번역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정부 통계간행물 및 각 부처 영문 웹사이트는 부끄러울 정도다. 중소기업 영문 사이트는 흥미로운 오역들이 많다. 농협 현미 포장에 ‘Uncleaned Rice’(더러운 쌀)로 표기하니 외국 소비자는 사료용으로 생각한다. 바른 현미 표기는 ‘Whole Grain Rice’ 또는 ‘Brown Rice’다. 종종 미국 업자들이 나에게 회사의 규모로 봐서는 좋은데, 영문 소개가 초등 수준이라 믿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 간행물 영어 번역의 재미있는 사례를 들면, 한국통계연감에 ‘남녀별 사망’ 통계가 있는데 영문 표기를 ‘Death by Sex’로 했다. 물론 틀린 문장은 아니다. 하지만 다의의 영어이니 ‘섹스로 인한 사망’이란 뜻도 되니 ‘Death by Gender’ 아니면 ‘Death, by Sex’로 콤마(,)를 넣어 표기하는 것이 웃음의 대상이 안 된다.

세상에 전문가가 따로 있나! 기초 영어가 되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다. 정부 부처, 기업, 대학에 있는 기존 인력들은 기초는 다 있을 터이니, 이분들이 회화 수준 단계에 머물지 않고 자습(Home work/Self learning)으로 영문 실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면 된다. 영어회화는 기능교육(노래, 운동, 그림 등)으로 지도(Coaching)가 필요하지만, 읽기·쓰기는 혼자서 기초만 있다면 자습으로(필요하면 약간의 지도)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5월23일자)

### ※최주천 박사 프로필

- 경북대학교, 농예화학(학사)
- Minnesota대 농업경제 박사/부전공, 식품화학
- Georgia대 농업경제 조교수(지역경제발전)
- 미 국무부 USAID/USOM 한국파견 : 현직교수 및 공무원 연구 기법·서식지도
- 미 농무부 농업 관측, 식품영양국 정책 담당
- KBS TV 와 Radio: ‘세계 식량문제’ 방송출연
- 농장출신 미국부인과 양식·한식 식생활
- 경성대 경제학 교수 및 언어 연구원 창설(원장)
- 서울대 및 고려대 대학원 강사
- 통계청, 농식품부, 기타 기관 통계연보·연감 영문 감수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정부 연구원) 해외자문
- 농민신문사 워싱턴 객원 기자
- 저서 약 30편(영문 25, 국문 5, 미국 대학 및 정부 보고서·기타 간행물)

## “가고 싶은, 보내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리하이밸리 한국학교”

평범한 아이들에게서 특별함을 끄집어내는 창의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한국학교가 있다. 필라델피아 북쪽 리하이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리하이밸리 한국학교가 그 주인공.

“배워서 남 주는 교육, 우리 말과 글을 읽고 쓸 뿐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이해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합니다” 정혜숙 교감의 한국학교에 대한 철학에서 읽을 수 있듯이 리하이밸리 한국학교는 우선 재미있고 푸근하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한다.



1983년 주재원 자녀들과 한인 2세들을 위해 처음 설립된(최태영 교장) 리하이밸리 한국학교는 이승공 교장 선생님 때는 60~70여 명의 학생들로 학교가 활기를 띠기도 했다. 이후 IT 대기업들의 타주 철수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보이다가 2009년 이경수 교장의 부임으로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정수경 선생님의 합류는 스타학교 탄생을 예고하게 된다. 정혜숙 교감은 정수경 선생과 의기투합해 “가고 싶은, 보내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리하이밸리 한국학교”라는 교훈을 내 걸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일들을 향해 길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한 해 동안 가슴 뛰는 일들을 서두르지 않고 해낸다. 동중부협의회 주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동상 및 장려상 수상’, 리하이밸리 지역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6·25 60주년 참전 용사의 날 개최, 리하이밸리 지역 입양가족 초청 잔치 리하이밸리 교회와 공동 개최, 전통혼례 재현 및 관광 자료 배부(한국관광 공사 및 한국문화원 후원) 등의 화려한 역사를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자체 교사 워크숍을 열어 교사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제규 후원회장 주최로 열리는 ‘리하이밸리 한국학교 후원 골프 대회’와 지역 한인들의 크고 작은 후원은 백마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2세 교육과 사랑을 위한 짧은 메시지다. 말 없이 주고받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하나라는 메세지!

“한국학교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수경 선생의 말이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다시 한국학교 교사가 되어 돌아오는 꿈을 꿩니다” 정교감과 정수경 선생은 같은 꿈을 꾸고 있다. 두 사람의 꿈은 정수경 선생의 제자 제시카 쉬람이 외국인 성인반 교사로 오면서 이뤄졌다. 제시카 쉬람 선생님은 제 1호 자체 육성 외국인 교사다.

긍정적인 사고로 사랑의 거품을 흥건하게 불려주시는 계은애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새로 부임하면서 학교는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다. 아이들이 자다 일어나 ‘엄마! ’ 하듯이 학생들이 삶의 순간순간 빈칸을 메울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그걸 한국학교에서 배워나갔으면 하는 게 리하이밸리 선생님들의 희망사항이다.

조용히 모든 것을 풀어주는 이재인 샛별반 선생님, 금요일 저녁마다 아기를 맡아주는 남편에게 늘 감사와 미안함을 느끼면서 그 이상을 한국학교에 쏟아내는 김은경 선생님, 교사로서, 학교 교무로서 아무진 살림과 학생지도를 맡아 있는 구제니 선생님,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깊은 이해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작은 거인 권민정 선생님, 역사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박지현 선생님, 모두가 아이들의 작은 변화나 웃음소리까지 관찰하고 재밌는 소스를 얻고 싶어한다. 리하이밸리 한국학교에는 엄마들의 따뜻한 눈이 있고, 눈 맑은 학생들의 천진한 시선이 있고, 아이들을 보듬는 교사들의 시선이 있다.

정혜숙 교감에게는 힘들 때마다 떠 올리는 ‘손’이 있단다. 2009년 교감 부임하던 해, 개강식 날 80 노구의 권사님께서 “한국학교 일은 우리의 책임이며 애국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일해야 한다. 수고 많이 해라”며 후원금 100달러를 줘어 주시면서 정 교감 손을 꼭 잡아 준 손이다.

누군가가 한국학교를 향한 그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으면 정혜숙 교감의 대답은 늘 똑같단다. “애들이 좋아서. 재미있으니까!” 리하리밸리라는 미답지는 곧 오솔길이 되고, 대로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 길로 몰려갈 것이 분명하다.

[설인숙 /재미한국학교 동중부협의회 부회장]

(재외동포신문 5월23일자)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10:00pm on Friday & Saturday



## “한식, 오감으로 체감해야 진정한 매력 느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프랑크푸르트 로스마르クト(Rossmarkt)에서 진행된 ‘제1회 한국문화축제’ 개막식을 장식한 ‘통일비빔밥’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멀리 전주에서 온 전주전통문화관 안상철관장은 정부 주도의 한식 세계화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안 관장은 “단발성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짜야한다”며, “단순히 레시피 도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감’을 통해 직접 체험해야만 한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식이 자장면이나 일본의 스시처럼 생활·문화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식이 갖고 있는 본질성과 대중화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급변하는 트렌드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식세계화가 이벤트에만 치중돼 있으며, 해외에 한식당을 많이 만든다고 세계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음식보다 중요한 게 없으며 하루 세끼 먹는다고 치면 10년이면 1만끼를 먹는 셈이다”며, 일상에서 외국인들이 한식을 즐기며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안 관장은 빅 푸드(Big Food) 이벤트인 대형 비빔밥 행사가 갖는 의미로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쌀이나 나물 등 재료 측면에서는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으나 프랑크푸르트인들에게 비빔밥의 위대함을 조금이나 느끼게 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독일인들은 짜고 매운 것을 싫어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약간 변형을 시켰으나 비빔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매운맛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융통성을 발휘하되 한식 고유의 본질마저 잊어선 안된다는 취지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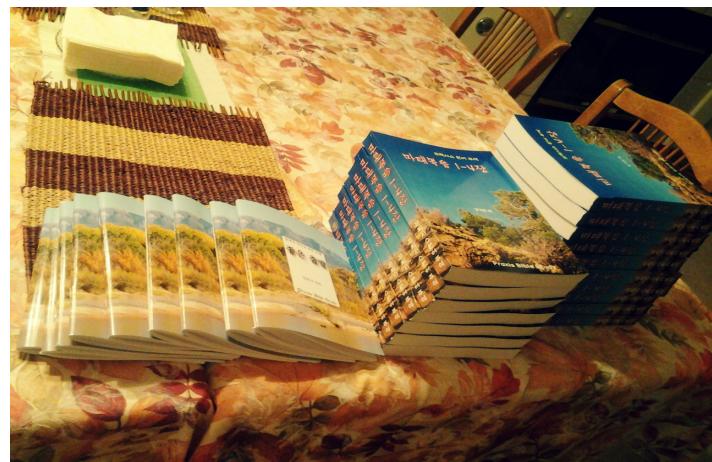
▲ 지난 5일 오전 프랑크푸르트 로스마르クト(Rossmarkt)에서 열린 제1회 한국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된 통일비빔밥 행사.

25년간 연극을 연출했던 그는 전주 지역에서 문화체험, 공연 등의 축제를 오랫동안 기획했고, 전주문화관장으로는 3년째 역임하고 있다. 이번 축제 진행과정이 다소 미흡했지만 교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전주문화관 한식팀을 격려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는 안 관장은 전주맛잔치, 비빔밥 축제를 총감독 할 정도로 한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 많은 동포들이 나가 있고 한식당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과 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도 꼬집었다. 홍보관 등을 통한 중앙정부 주도의 한식 세계화가 아니라 한식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동포들

과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무형문화라는 인식 확산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할 것도 잊지 않았다. (재외동포신문 6월11일자)

## “김기천 목사의 새 책: 좋은 출발과 마태복음1-4장”



지난 5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김기천 목사의 책 두 권이 출판되었다. 하나는 성경공부 교재인 “좋은 출발”이고 다른 한 책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성경 원어에 근거해서 주석한 책 “마태복음 1-4장”이다. 다음은 주석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 마태복음 3:16절을 소개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βαπτισθεὶς ὁ Ἰησοῦς: 빙티스페이스 호 예수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구속 사역과 연관된다. 예수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죄인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죄인처럼 못 박혀 죽으셨다. 죄인의 형틀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죄인으로 죽은 것은 아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았지만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따라야 할 규례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수는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처럼 생활하시다가 죄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는 죄인들과 떨어져 있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께서 죄인처럼 죄인들과 함께 살았던 이유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였다.

초대 기독교 작가들이나 교부들은 예수의 세례 받으신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였다. 첫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는 세례의 타당성을 입증해주었다. 사실 예수 자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실상 참 세례를 주시는 분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였다(마 3:11). 그러나 신 구약에서 볼 때 요한에서 시작된 세례는 예수에 의해서 이어지고 더 나가서는 제자들에 의해 이어지게 된다(마 28:19). 이 세례를 예수께서 직접 받음으로 세례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둘째로 예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는 세례에 동참하도록 재촉했다. 예수는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낚추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마 3:14-15). 셋째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기꺼이 받아들였다(참고, Leopold Sabourin, S.J.,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272.).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중대하게 취급하였다. 예수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품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포기 했다. 요한에게 세례 받

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공적으로 낮추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높이셨다 (마 3:16-17).

물에서(ἀπὸ τοῦ ὕδατος: 아포 투 휘다토스)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의 성분을 정화시켰다. 그래서 세례식 때에 사용하는 물은 예수에 의해 정화된 물이란 사상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이다(참고, Ulrich Luz, Matthew 1-7, A Commentary, 175이하.)

세례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본 구절에 의해 살펴보면 마태는 전치사 ejk(에크) 대신에 aijo; (아포)를 사용했다. 이것은 세례가 반드시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참고, Willoughby C. All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29.)

또한 세례에 쓰는 물이 정지된 물이냐 흐르는 물이냐에 대한 논의에서 초기 동방 크리스챤들은 세례에서 쓰는 물이 흐르는 물이었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물을 “요단”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사실 만다이파(Mandaean sect) 사람들은 세례 때에는 오직 흐르는 물만을 사용했다(참고, Leopold Sabourin, S. J.,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273. 각주 70.)

하늘이 열리고(ἡνεώψηθσαν αὐτῷ οἱ οὐρανοί: 에네옥떼산 아우토 호이 우라노이)

본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ἡνεώψηθσαν αὐτῷ οἱ οὐρανοί: 에네옥떼산 아우토 호이 우라노이)을 직역하면 “하늘들이 그에게 열렸다”란 의미가 된다. 한글 개역성경은 “그에게”(αὐτῷ: 아우토)가 없이 “하늘이 열리고”로 번역했다. “그에게”(αὐτῷ: 아우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글 개역성경 본문처럼 “하늘이 열리고”를 마태복음 원문으로 본다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예수와 함께 본 것이 된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처럼 “그에게”(αὐτῷ: 아우토)가 있는 구절(ἡνεώψηθσαν αὐτῷ οἱ οὐρανοί: 에네옥떼산 아우토 호이 우라노이)을 마태복음 원문으로 인정한다면 예수에게만 하늘이 열린 것이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예수의 개인적인 체험이 된다. 뒤에 이어 나오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모든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만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수 개인의 체험이다(참고,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66.)

이런 표현들은 세례 받으시는 예수처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과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암시일 수 있다.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 첫 사람 아담은 그의 죄를 통하여 하늘을 닫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을 다시 열었다. 그리스도에 의해 처음으로 다시 열려진 하늘은 마태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고 현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열려 있다(참고, Ulrich Luz, Matthew 1-7, A Commentary, 176.)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록 4:1절이나 에스겔 1:1절처럼 계시적 사건이다. 하늘이 열림으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통로를 통하여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 통로를 통하여 본 구절처럼 하늘에서 성령이 지상에 내려와 거할 수 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그 위에 거했다(참고, Leopold Sabourin, S. J.,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274.

이것은 곧 예수의 뒤를 따르는 진실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그들 위에 거할 것이란 예고가 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καταβαῖνον ὡσεὶ περιστερὰν: 카타바이논 호세이 페리스테란)

사복음서 모두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있었던 성령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3:22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본 절에서는 성령의 내려오심을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유대 문학들을 보면 비둘기를 지혜나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는 볼 수 있지만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을 비유로 사용한 경우는 많지 않다(참고, Jack P. Lew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Part I (1:1 - 13:52), 65.)

본 구절에 의하면 성령이 예수 위에 비둘기 같이 임했다.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위에 임했다(민 9:22, 11:25, 사 19:1). 이사야 60:8절을 보면 구름이 임하는 것과 비둘기가 임하는 것이 같이 표현된다. 그렇다면 비둘기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던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태초에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최초의 물 위를 비둘기처럼 떠돌아다녔다. 이 성령이 예수의 세례 때에 비둘기처럼 임하여 곧 이루어질 새 출애굽과 새 창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참고, Leopold Sabourin, S. J.,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279.).

종교 개혁자 루터(Martin Luther)는 본 절에 비둘기를 진짜 비둘기라고 믿었다. 마태는 성령이 비둘기라면가 아니면 비둘기 같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태는 성령의 강림하심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에 비교하고 있다. 즉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앞 절에 있는 심판의 표현처럼 나무꾼이 도끼로 찍어 내리는 모양도 아니고, 불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모양도 아니고, 회오리 바람처럼 부수는 모양도 아닌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것이다(참고, Robert H. Smith, Matthew, 57.)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메시야의 기름부음과 관계가 있다. 본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야” 모두 “기름부음 받은 자”란 의미가 있다. 본 구절에 성령이 예수 위에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은 구약에서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 흘러내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사실 사도행전 10:38절을 보면 예수는 성령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한다. 구약에 보면 왕들이 기름부음을 받았다(삼상 10:1, 16:13). 본 구절에서 세례 받을 때에 예수의 머리 위로 내려왔던 성령은 새 시대의 왕으로 임명받는 기름부음이 될 수도 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는 메시야에게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강림할 것임을 예언하였다(사 11:2, 42:1).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는 세례 받기 전에도 이미 성령으로 임태한 그리스도 즉 메시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때에 임한 성령 사건은 예수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세례를 받은 후부터 공식적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다.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새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새 왕이 되면서 성령을 통하여 신적인 왕권을 받는다. 이런 권능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한다(마 12:28)(참고, Douglas R. A. Hare, Matthew, 22.)

예수의 세례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후에 온 교회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3: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후에 초대 크리스챤들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행 2:4, 4:31). 초대 크리스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 시대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세례는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다. 예수의 세례는 새 이스라엘인 온 교회에게 성령을 부으심에 대한 예고가 된다(참고, Leopold Sabourin, S. J.,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276.)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voiceofnm@gmail.com

<b>알버커키 Albuquerque</b>	<b>공인회계사 CPA</b> MTM Accounting Service :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b>주택융자 Loan Officer</b>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사진관</b>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b>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b>	<b>리커스토어 Liquors</b>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 8222)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Hair & Co( ):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 ): 11901 Menaul NE (505-271-1056)	<b>치과 Dental Clinic</b>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	<b>부동산 Realtors</b>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b>커피 재료 Coffee</b>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b>태권도 TaeKwonDo</b>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b>건축/페인트 Painting</b>	<b>세탁소 Dry Cleaners</b>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가 :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한의사 Acupuncture</b> Dr. Chang: 301 San Pedro Suit# B,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b>리오란초 Rio Rancho</b>  <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b>의류 Clothes</b>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b>화랑 Gallery</b> Park Fine Art Gallery( ):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b>클로비스 Clovis</b>  <b>종교 Church</b>
<b>1st Choice Painting</b>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Mr. Han Cho /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b>화원/원예 Nursery</b>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voiceofnm@gmail.com

----- 87402 (505-327-7167) -----

##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 산타페 Santa Fe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Sonoma Dental Implants Cosmetics 575-589-1599, 575-932-8217 1074 country club rd, #3A Santa Teresa, NM 88008

### 종교 Church

###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525 N. Madrid Suite #2,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1132 Solano, Las Cruces, NM 88001 (575-644-6545)

## 겔럽 Gallup

### 신발 Shoes

### 모텔 Hotel/Motel

## 화밍تون Farmington

### 종교 Church

: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Mon~Sat  
10:00~6:00  
Sunday  
close

##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313

(505) 271-1777 [www.kaanm.com](http://www.kaanm.com)

Attach Stamp

To: